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6.4.17

ABT US · 글로벌 의료기기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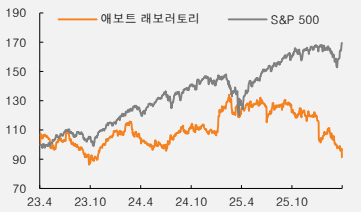
애보트 래보러토리

M&A 영향으로 연간 가이던스 하향

	Not Rated
Refinitiv 평균목표주가	USD 129
현재주가(26/4/16)	USD 95.47
상승여력	34.8%

S&P 500(p)	7,041.28
EPS 성장률(25F,%)	-51.3
P/E(25F,x)	33.4
배당수익률(%)	2.0
시가총액(십억USD)	165.90
시가총액(조원)	244.38
상장주식수(백만주)	1,737.7
60일 평균 거래대금(백만USD)	1,323.96
52주 최저가(USD)	95.47
52주 최고가(USD)	138.08

(%)	1M	6M	12M
절대주가	-13.2	-25.2	-26.4
상대주가	-17.4	-29.6	-44.8



[첨단의료기기/디지털헬스]

김충현, CFA
choonghyun.kim@miraeasset.com

1Q26 Review: 매출 및 조정순이익 시장기대치 부합

매출은 111.6억달러(8% YoY)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였다. 영업이익은 13.5억 달러(-21% YoY, OPM 12%)를 기록하였다. 조정 순이익은 20.2억 달러(5% YoY)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2026년 가이던스는 유기적 매출 성장률은 6.5~7.5%, 조정 EPS 5.48달러로 제시했다.

12개월 선행 P/E 17배로 지난 10년래 역사적 저점

이번 분기에도 의료기기는 두 자릿수 고성장세가 이어지며 전체 매출 비중이 50%로 증가했다. 전기생리학, 심부전 및 부정맥 관리 등 심혈관 사업 부문이 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기생리학은 PFA 신규 카테터가 20% 이상 성장하며 외형성장을 주도했다. 동사는 전극도자절제술 매핑 장비의 지배력이 높고, PFA 시술과 병행 요법으로 시술 가능한 좌심방이 폐색기를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다만, 핵심 사업인 당뇨부문은 작년 기저효과로 다소 부진했으나, 2Q26부터 다시 두자릿 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비인슐린 환자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미국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환자군 약 1,000만 명이 증가하게 된다.

진단 사업에서는 미국 최대 암 진단 기업인 Exact Sciences의 인수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매출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진단사업부 외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용량 진단 사업 부문도 작년 중국 VBP 영향에서 벗어나며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사업도 좋다.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높은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양사업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가격 인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는 호실적을 기록하였고, 올해 외형성장이 기대됨에도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하향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와 적자상태인 Exact Sciences 합병과 그에 따른 합병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는 지난 10년 이내 역사적 저점 수준인 12개월 선행 P/E 17배로 동사의 지난 3년 평균(23배) 및 글로벌 Peer(20배)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

결산기 (12월)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USD 100mn)	401	420	443	478	514
영업이익 (USD 100mn)	64	66	81	88	95
영업이익률 (%)	16.0	15.7	18.3	18.4	18.5
순이익 (USD 100mn)	57	134	65	84	90
EPS	3.29	7.70	3.75	4.83	5.20
ROE (%)	15.3	31.2	13.9	16.8	15.7
P/E (배)	33.5	14.7	33.4	19.8	18.3
P/B (배)	3.5	3.0	3.4	2.4	2.1

주: GAAP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애보트 래보러토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Q) 수정된 가이던스에 대한 코멘트는?

A) 가이던스 철학은 투자자들에게 가능한 한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 Sciences 인수를 반영하는 방식도 같은 철학에서 결정했다. 과거 COVID 매출을 별도로 구분했고, St. Jude 인수 때도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재정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Abbott 포트폴리오를 가장 깔끔한 apples-to-apples 기준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이다.

우리는 Exact를 조기에 comparable basis로 포함시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2분기 이후에 인수가 마감됐다면 일반적인 medtech 방식처럼 1년 동안 별도로 두고 추후 연 환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매 분기마다 인수 효과와 기존 사업 성장률을 계속 조정해서 설명해야 했을 것이다.

이번 가이던스에서 보수성이 반영된 핵심은 호흡기 시즌 가정이다. 1분기 호흡기 시즌을 원래도 약하게 가정했는데 실제는 그보다 더 약했다. 이를 4분기에 만회하려면 평균 이상으로 강한 호흡기 시즌을 전제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추수감사절 직전이 되어야 알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4분기 호흡기 수요 반등을 가이던스에 넣지 않았다.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제조 능력, 유통, 영업조직은 모두 갖추고 있다. 단지 이를 사전에 숫자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외 사업부의 성장 전망은 1월 가이던스와 거의 같다. 첫 번째 성장축은 Medtech와 Pharma다. Medtech는 low double digit, Pharma는 7% 이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trajectory-changing businesses로, Diagnostics Core Lab과 Nutrition이다. Diagnostics는 작년 중국 VBP와 COVID 영향으로 약 $1B 역풍이 있었지만 최근 6개월의 흐름을 보면 회복이 계획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진행 중이다. Nutrition은 아직 회복 초기이지만 4분기 중반에 내린 결정들이 점차 물량 회복으로 이어지는 조짐을 보고 있다. 세 번째는 Exact Sciences 통합으로, 고성장 사업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점이다.

Q) 중동 분쟁과 거시환경이 Abbott에 미치는 영향은?

A) Abbott는 원래 이런 충격을 버티도록 설계된 회사다. 원유·수지 비용 상승 여부는 아직 이르다. 현재까지는 supplier freight cost 상승도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이를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각 사업부에는 gross margin 개선과 원가 충격 대응만 전담하는 팀이 있다.

1분기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수요나 reimbursement 문제가 아니라 제품을 지역으로 보내는 logistics 이슈가 주된 요인이었다. 항공·해상 운송 경로가 혼잡해지면서 재고를 조금 더 현지에 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동 지역 팀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

표 1. 1Q26 실적 비교표 (백만달러, %, %p)

	1Q25	4Q25	1Q26		성장률	
			확정 실적	컨센서스	YoY	QoQ
매출액	10,358	11,459	11,164	11,003	7.8	-2.6
영업이익	1,693	2,251	1,345	2,283	-20.6	-40.2
영업이익률 (%)	16.3	19.6	12.0	20.7	-26.3	-38.7
순이익	1,325	1,776	1,077	1,542	-18.7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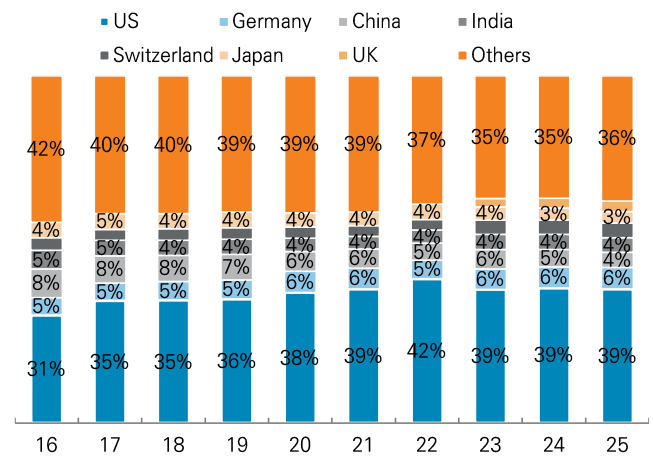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2. 분기별 실적 전망표 (백만달러,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358**	**11,142**	**11,369**	**11,459**	**11,164**	**12,568**	**13,177**	**13,510**	**44,328**	**50,419**	**54,926**
Medical	**4,895**	**5,369**	**5,448**	**5,675**	**5,539**	**5,748**	**6,105**	**6,129**	**21,387**	**23,521**	**25,621**
Rhythm Management	585	673	686	705	684	707	741	760	2,649	2,893	3,091
Electrophysiology	629	700	705	730	788	824	864	886	2,764	3,363	3,602
Heart Failure	339	368	366	375	389	375	393	403	1,448	1,561	1,639
Vascular	710	757	745	783	777	812	851	873	2,995	3,313	3,548
Structural Heart	577	636	635	675	578	588	616	632	2,523	2,414	2,569
Neuromodulation	228	254	254	274	243	211	221	227	1,010	901	921
Diabete Care	1,827	1,981	2,057	2,133	2,080	2,231	2,418	2,348	7,998	9,077	10,250
Dx	**2,054**	**2,173**	**2,253**	**2,457**	**2,180**	**3,149**	**3,275**	**3,495**	**8,937**	**12,099**	**13,811**
Core Lab	1,177	1,358	1,364	1,461	1,272	1,426	1,432	1,534	5,360	5,664	5,947
Cancer Dx					96	892	936	945	3,228	2,869	3,941
Rapid/MDx	877	815	889	996	812	831	907	1,016	3,577	3,566	3,923
Nutrition	**2,146**	**2,212**	**2,153**	**1,940**	**2,017**	**2,074**	**2,148**	**2,175**	**8,451**	**8,414**	**8,562**
EPD	1,260	1,383	1,511	1,382	1,426	1,597	1,649	1,711	5,536	6,383	6,932
영업이익	**1,693**	**2,052**	**2,057**	**2,251**	**1,345**	**1,766**	**2,009**	**2,290**	**8,053**	**7,409**	**8,200**
순이익	**1,325**	**1,779**	**1,644**	**1,776**	**1,077**	**1,714**	**1,923**	**2,164**	**6,524**	**6,878**	**7,651**
매출 성장률 (%)	**4.0**	**7.4**	**6.9**	**4.4**	**7.8**	**12.8**	**15.9**	**17.9**	**5.7**	**13.7**	**8.9**
Medical	**9.9**	**13.4**	**14.5**	**12.3**	**13.2**	**7.1**	**12.1**	**8.0**	**12.6**	**10.0**	**8.9**
Rhythm Management	4.1	10.9	14.9	13.0	16.9	5.1	8.1	7.8	10.8	9.2	6.8
Electrophysiology	7.2	11.6	15.6	13.5	25.3	17.8	22.6	21.4	12.0	21.7	7.1
Heart Failure	11.1	14.6	13.7	13.3	14.7	1.9	7.4	7.5	13.2	7.8	5.0
Vascular	3.0	4.6	6.6	8.0	9.4	7.3	14.3	11.5	5.6	10.6	7.1
Structural Heart	12.0	12.8	13.8	10.8	0.2	-7.6	-2.9	-6.4	12.3	-4.3	6.4
Neuromodulation	0.9	4.5	7.6	6.6	6.6	-17.0	-13.0	-17.3	5.0	-10.8	2.2
Diabete Care	16.4	20.2	19.2	14.5	13.8	12.6	17.5	10.1	17.5	13.5	12.9
Dx	**-7.2**	**-1.0**	**-6.6**	**-2.5**	**6.1**	**44.9**	**45.4**	**42.3**	**-4.3**	**35.4**	**14.1**
Core Lab	-2.3	2.2	3.8	5.3	8.1	5.0	5.0	5.0	2.4	5.7	5.0
Cancer Dx	10.9	16.0	20.0	20.5	13.3	10.0	10.0	10.0	17.0	12.9	37.3
Rapid Dx	-13.1	-5.9	-19.0	-12.1	-7.4	2.0	2.0	2.0	-12.9	-0.3	10.0
Nutrition	**3.8**	**2.9**	**4.2**	**-8.9**	**-6.0**	**-6.3**	**-0.2**	**12.1**	**0.5**	**-0.4**	**1.8**
EPD	**2.8**	**6.9**	**7.5**	**9.0**	**13.2**	**15.5**	**9.1**	**23.8**	**0.7**	**1.5**	**0.9**
영업이익률 (%)	16.3	18.4	18.1	19.6	12.0	14.0	15.2	16.9	18.2	14.7	14.9
순이익률 (%)	12.8	16.0	14.5	15.5	9.6	13.6	14.6	16.0	14.7	13.6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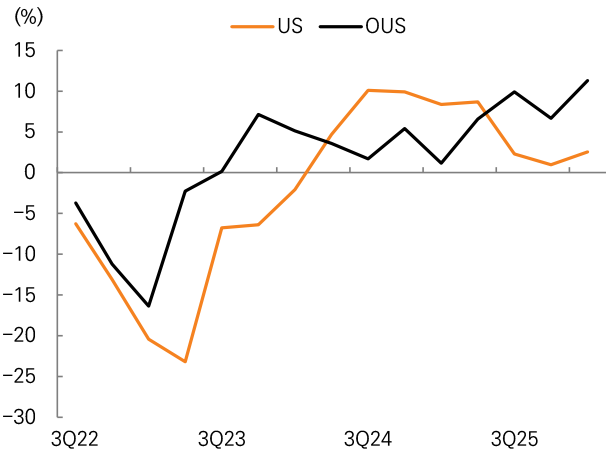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지역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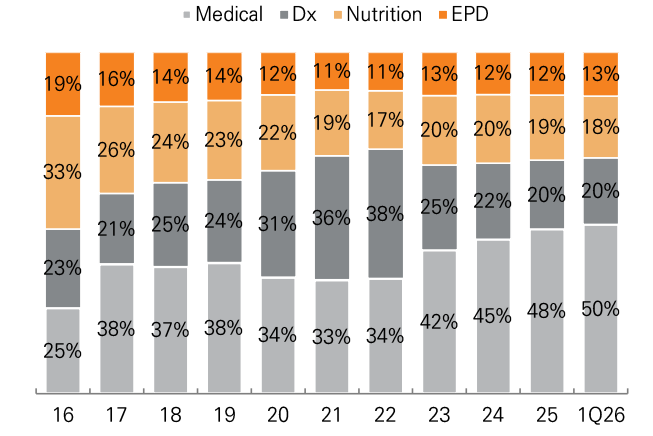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지역별 매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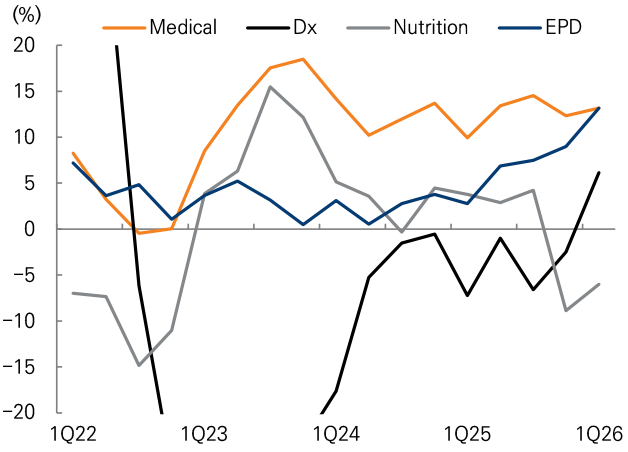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품목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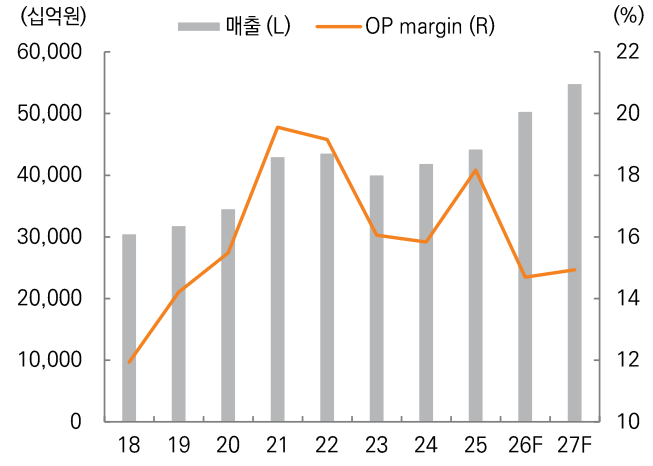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품목별 매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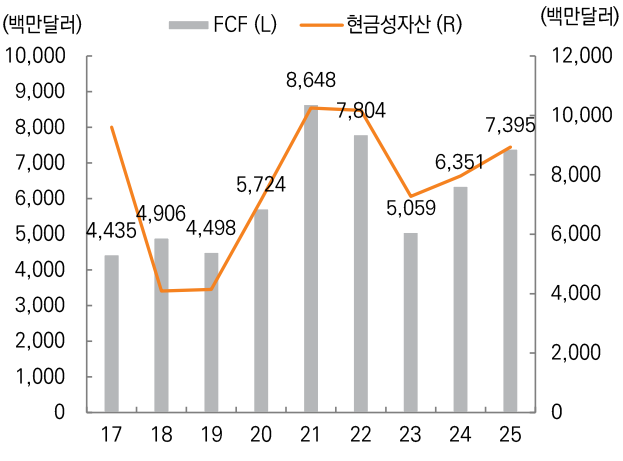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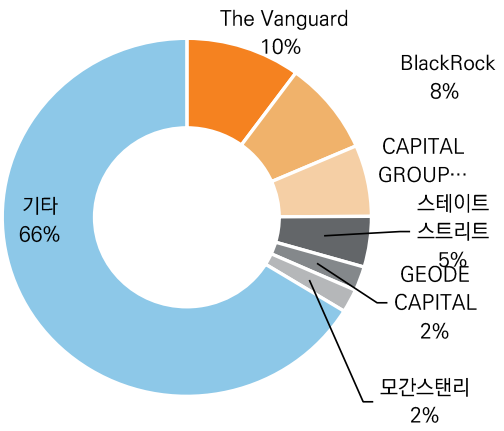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FCF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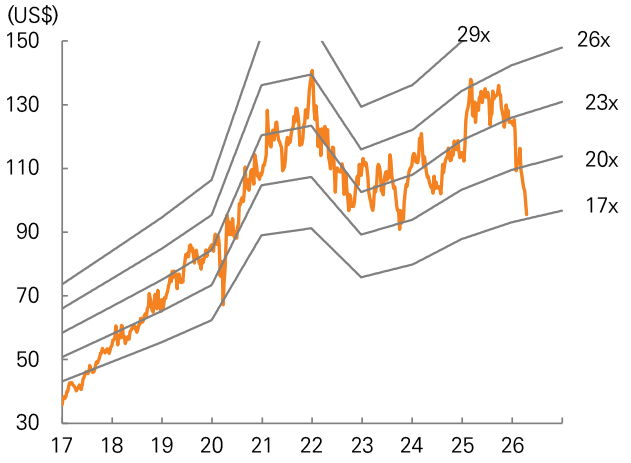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지분율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12개월 선행 P/E 밴드 차트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Global peer valuation

회사명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률 (%)			P/E (X)			P/S (X)			EV/EBITDA(x)			매출 (십억원)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25	26F	27F
로슈	481,367	30.0	35.0	35.9	-	-	-	-	4.1	3.9	12.9	11.2	10.6	105,510	118,051	122,300
애보트	245,927	18.2	24.2	24.0	23.2	17.1	15.5	3.7	3.5	3.1	20.0	12.9	11.7	63,027	70,549	78,717
써모 피셔	283,526	17.4	23.1	23.6	27.0	20.9	19.2	4.4	4.1	3.9	23.6	18.3	17.2	63,351	69,332	72,953
다나허	202,828	19.1	28.9	29.4	33.1	23.1	21.3	5.6	5.3	5.0	24.8	18.4	17.0	34,931	37,811	40,120
Labcorp	32,378	9.9	14.5	14.8	17.6	14.9	13.8	1.6	1.5	1.4	12.9	10.7	10.1	19,837	21,644	22,688
퀘스트	31,343	14.1	15.7	16.1	21.3	18.0	16.7	1.9	1.8	1.7	11.8	11.4	10.7	15,690	17,347	18,026
비오메리외	18,793	12.8	17.8	18.6	27.0	19.3	17.3	2.6	2.5	2.4	13.4	10.1	9.1	6,538	7,351	7,903
퀴아젠	12,484	22.3	29.5	29.8	18.4	16.3	14.9	4.1	3.8	3.6	16.1	10.9	10.1	2,972	3,264	3,460
바이오래드	11,515	1.8	12.2	13.0	31.8	28.4	25.6	3.1	3.0	2.9	28.7	16.4	15.2	3,673	3,951	4,079
시스멕스	8,421	17.2	12.9	13.3	20.1	21.6	19.4	1.8	1.8	1.7	8.4	8.3	7.8	4,655	4,633	4,958
디아소린	6,055	19.1	23.5	23.9	22.4	16.3	14.2	2.9	2.8	2.6	12.4	10.1	9.2	1,920	2,157	2,311
Wondfo Biotech	1,277	-33.7	14.3	14.7	-	5.9	4.7	0.3	0.3	0.3	-	5.2	5.0	3,882	4,088	4,244
퀴델	1,796	20.8	7.2	14.6	33.2	25.0	17.9	3.3	3.6	3.2	-	-	-	581.5	471.1	530.3
에스디바이오센서	1,407	7.3	11.1	14.4	25.8	22.1	15.6	2.6	2.6	2.3	6.1	7.3	6.2	474	532	604
씨젠	1,124	-11.4	-	-	-	-	-	1.6	-	-	18.4	-	-	711	-	-
바디텍메드	271	17.9	20.1	-	11.4	-	-	1.7	1.5	-	6.9	-	-	162.1	182.9	-
전체 평균		**11.4**	**19.3**	**20.4**	**24.0**	**19.1**	**16.6**	**2.7**	**2.8**	**2.7**	**15.5**	**11.6**	**10.8**	**-**	**-**	**-**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의료기기 사업 부문

심혈관 사업 부문인 전기생리학, 심부전 및 부정맥 관리가 두 자릿수 성장함에 따라 55.4억달러(13% YoY)를 기록했다.

1) 당뇨 사업 부문

당뇨 사업은 20.8억달러(14% YoY)를 기록했다. 이 중 연속혈당측정기인 FreeStyle Libre 매출은 20억 달러(7.5% YoY)에 달했다. 이번 실적은 국제 입찰 관련 갱신 지연과 작년 재고조정에 의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2Q26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두 자릿수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심장 리듬

심장 리듬 사업 부문은 무선 심박조율기 AVEIR의 강력한 채택에 힘입어 3분기 연속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며 6.8억달러(17%YoY)를 기록했다.

3) 전기 생리학

전기 생리학 사업 부문은 이번 분기 출시한 두 가지 PFA 카테터 영향으로 7.9억달러(25% YoY)를 기록했다. Volt PFA 카테터 출시로 미국 시장에서 14%의 성장을, TactiFlex Duo 카테터 출시로 유럽 시장에서 10%대 중반의 성장을 달성했다.

4) 인공 판막

인공 판막사업은 Navitor, TriClip, MitraClip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며 5.8억달러(전년과 유사) 기록했다. 향후 몇 주 내로 Amulet LAA를 경구 항응고제와 비교 평가하는 CATALYST 임상시험의 환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5) 신경 조절

충전형 척수자극기 Eterna의 주도로 2.4억달러(7% YoY)를 기록했다.

6) 심부전 및 심혈관

심부전 사업 부문은 심부전 조기진단 센서인 CardioMEMS의 성장에 힘입어 3.9억 달러 15% YoY)를 기록했다. 심혈관 사업 부문은 7.8억 달러(9% YoY)를 기록했다. 2027년 관상동맥 IVL 디바이스 승인 이후에는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최근 미국 처방 데이터가 약한데, Libre 영향은? 향후 CGM의 주요 일정은?

A) 주간 처방 데이터(TRx)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시장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CGM은 일반 제약과 달리 미국 외 시장, 다른 채널, 다양한 환자군이 섞여 있기 때문에 TRx만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본다.

회사는 CGM 시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CGM을 사용해야 할 인구를 7,000만~8,00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1,000만~1,20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당뇨 인구 전체가 약 5억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도 이미 꽤 좁혀서 본 것이다. 여전히 침투율은 매우 낮다.

과거 15년의 분기별 매출 흐름을 봐도 성장률은 항상 45도 각도로 일정하게 올라간 적이 없다. 8%~10% 정도의 완만한 구간이 있다가, 이후 10~20%대의 가속 국면이 반복되었다. 이런 가속은 보통 reimbursement, 지역 확장, 신제품 출시 같은 촉매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금도 그런 촉매가 남아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촉매 중 하나가 Type 2 non-insulin reimbursement다. 제안 언어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올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 현재 비보장 상태인 약 1,000만 명 가까운 환자에게 접근성이 열릴 수 있고, 이는 상업보험 커버리지 확대도 가속할 것이다. 이 효과는 아직 가이던스에 넣지 않았다.

국제 시장도 중요하다. 세계 상위 10개 시장 중 basal coverage가 fully opened된 국가는 4개뿐이다. 나머지 6개 대형 시장은 아직 예산과 기준 정립 단계다. 회사는 ATTD에서 basal 환자에 대한 RCT도 제시할 예정인데, Libre 사용 환자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회가 많다고 본다.

제품 혁신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dual-analyte system은 올해 하반기 승인 예상이다. 이 제품은 기존 접근이 제한적이던 pump 환자 약 100만 명과, CGM을 사용하지 않는 SGLT2 사용자 약 500만 명에게 연속 케톤 측정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Libre 5도 개발 중이다. 회사는 비용 경쟁력과 제품 혁신을 동시에 통해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Q) Abbott의 EP 사업 현황은? Volt, TactiFlex Duo, 시장 성장률, 경쟁력은?

A) 지난 몇 년간 PFA 제품 없이도 double-digit 성장을 이뤄냈고, 이제는 그 공백 구간이 끝났다고 본다. 미국의 Volt와 해외의 TactiFlex Duo는 현재 limited market release 단계다. Abbott는 임상시험과 full launch 사이에 반드시 이런 중간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리소스, 포지셔닝, 임상시험에서 보지 못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드백은 매우 좋다. Volt는 conscious sedation 측면에서 특히 강점이 있고, European Heart Rhythm meeting에서 발표된 초기 데이터는 lesion durability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회사는 이제 EP 논의가 단순한 속도와 효율성에서 더 나은 환자 결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다.

TactiFlex Duo 역시 사용 편의성, lesion 생성 속도, RF-PFA 간 전환의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두 제품은 2년 전 포트폴리오 설계 때 기대했던 방향과 매우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회사는 올해 말이면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자체는 높은 한 자릿수 성장률로 전망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두 개의 신규 PFA 카테터, 새로운 ICE 카테터, 새 introducer, 연간 업그레이드되는 mapping system, 그리고 차세대 LAA device까지 갖춰져 있다. 또 pacemaker, ICD, leadless 기술까지 포함하면 매우 차별화된 EP 포트폴리오라고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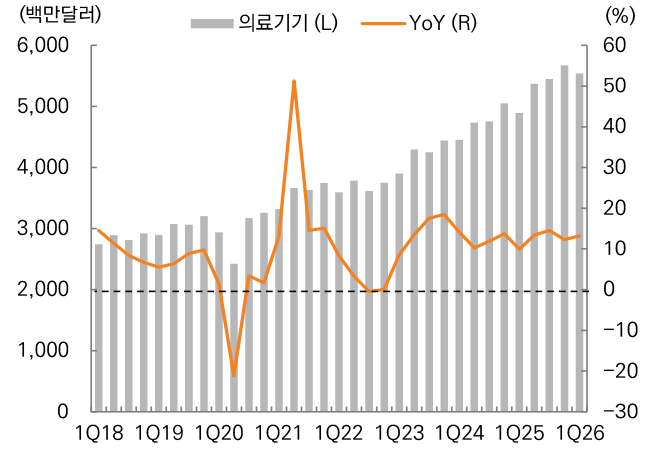
Q) Structural Heart와 LAAC 현황은 어떤가?

A) LAAC를 Structural Heart에 두었지만, 작년 말부터 이를 Electrophysiology 사업부로 옮겼다. 영업, 임상, 추후 생산까지 EP로 이관하고 있다. 이 조정이 Structural Heart 매출과 Street 모델 간 괴리의 일부 원인이다.

Structural Heart 자체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mitral 시장에서는 경쟁 심화가 있었고, 회사도 실행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를 위해 리더십 변경도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mitral과 TriClip 모두 double-digit 성장 중이며, 연간 Structural Heart는 high single digit growth를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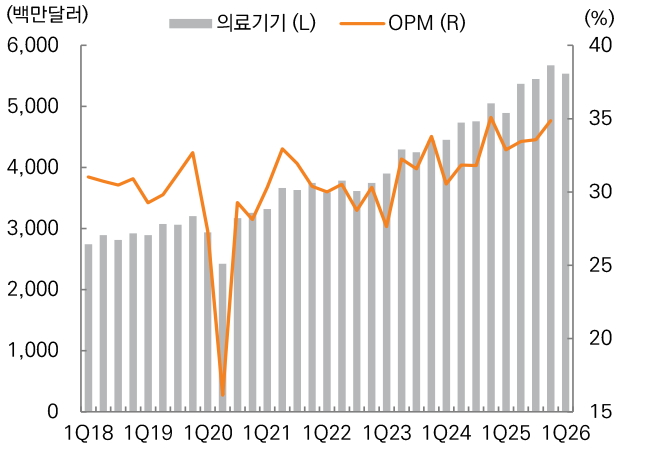
CHAMPION 데이터에 대해서는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 CATALYST 임상시험이 이미 fully enrolled 상태이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데이터로 이야기하겠다. 또한 next-generation product가 매우 유망하며, LAAC를 EP로 옮긴 것도 그 제품 가속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제품 출시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림 9. 의료기기 사업 부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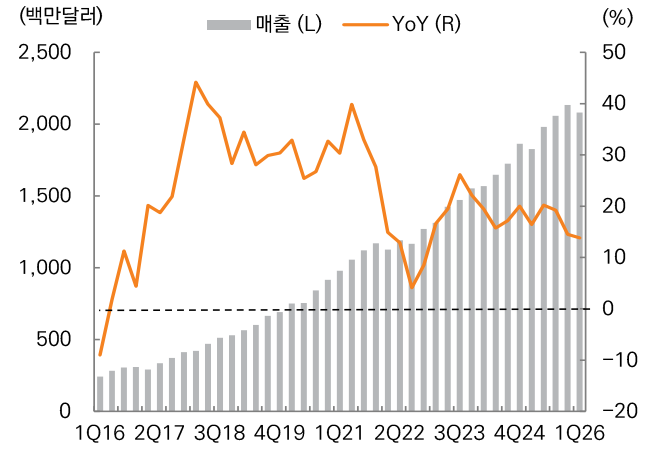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의료기기 사업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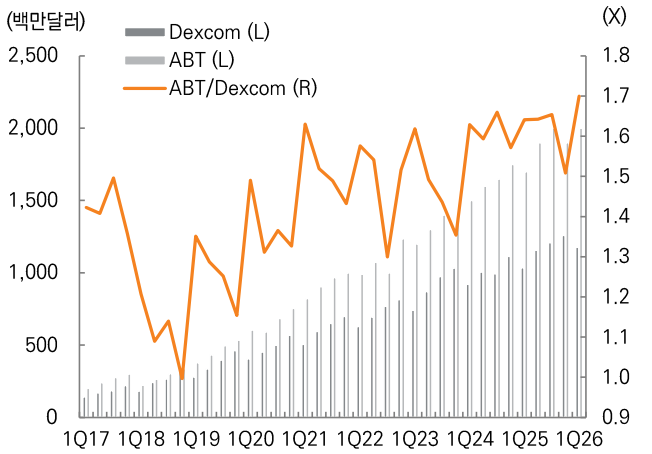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당뇨 매출 추이 (핵심제품: Freestyle Lib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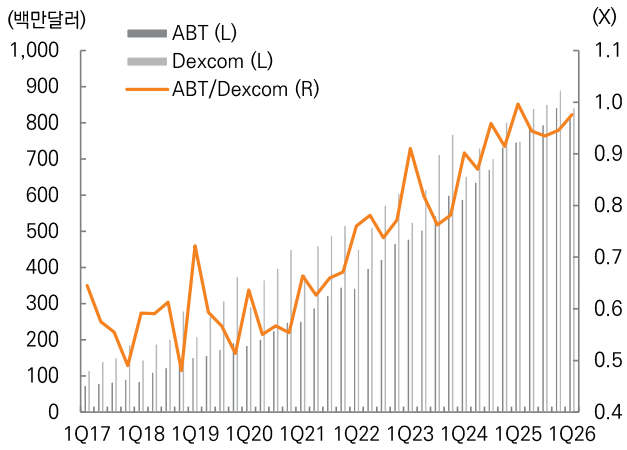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Dexcom과 매출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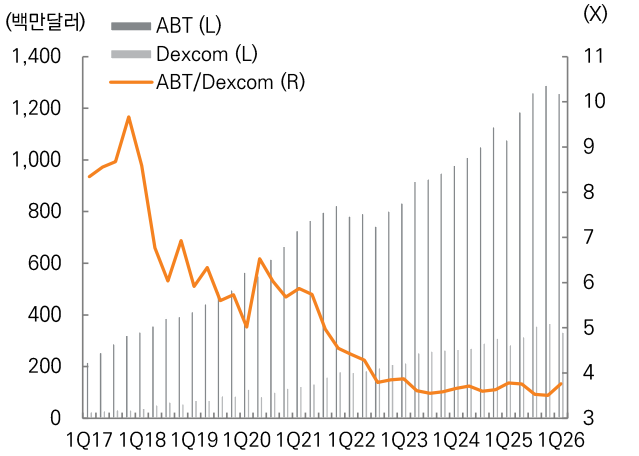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미국 매출 vs. De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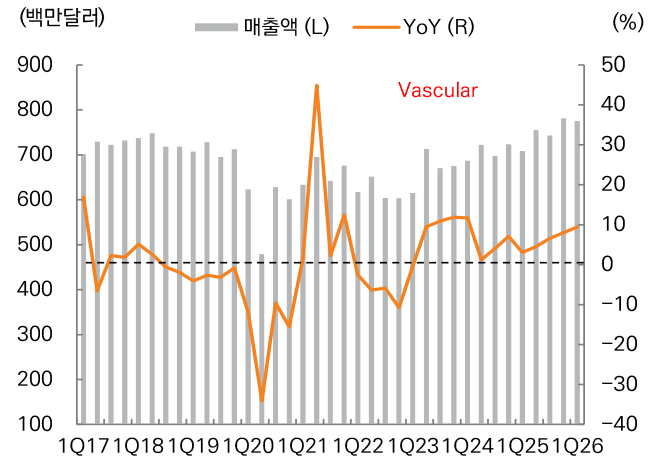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해외 당뇨 매출 vs. De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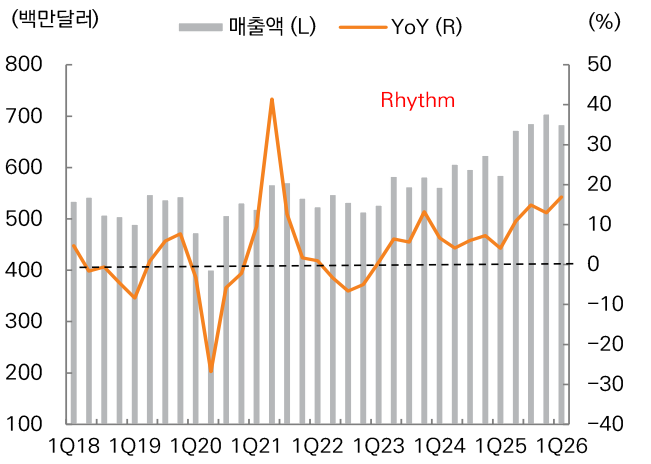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Vascular 사업 부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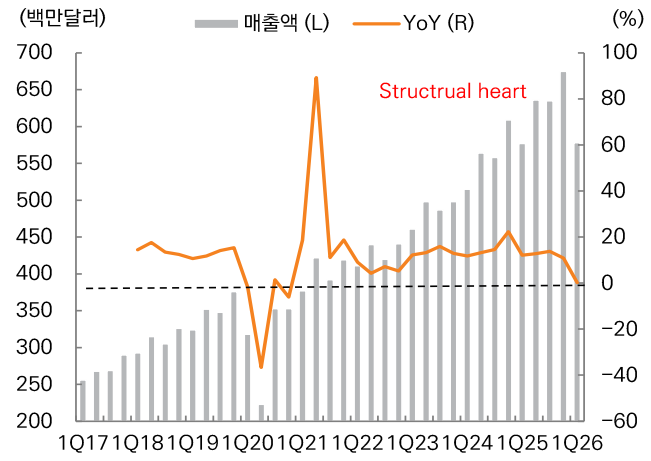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Rhythm Management 사업 부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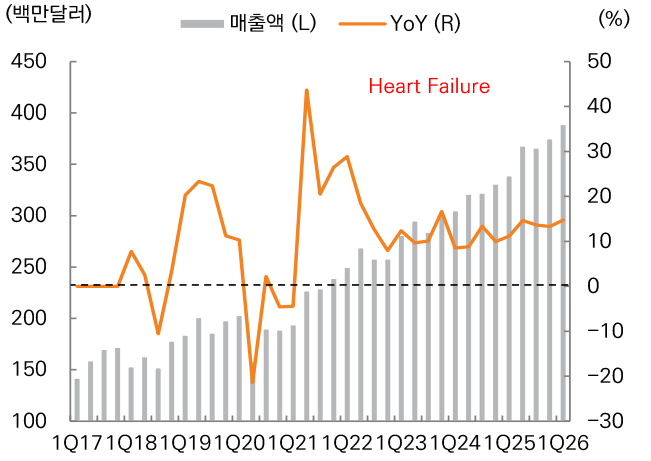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Structural Heart 부문 매출 추이 (핵심제품: Mitracl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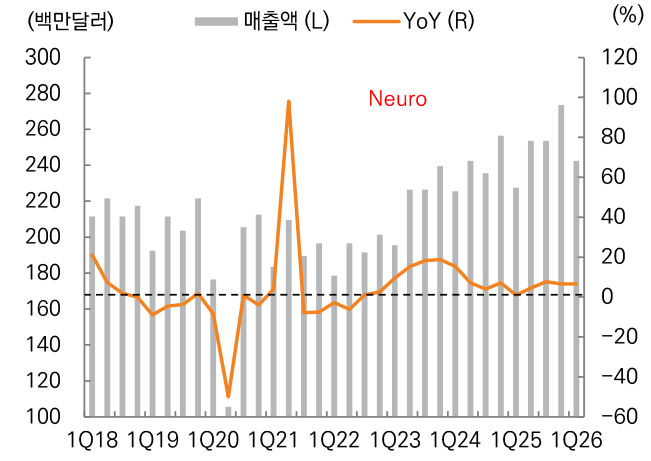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Heart Failure 부문 매출 추이 (핵심제품: Heartmat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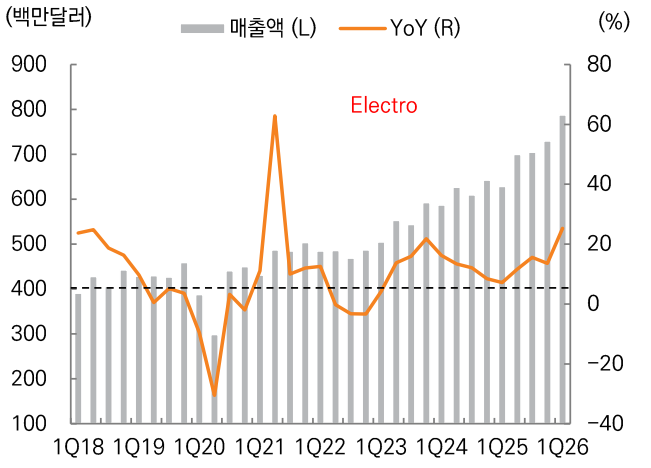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Neuromodulation 사업 부문 매출 추이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0. Electrophysiology 사업 부문 매출 추이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체외 진단 사업 부문

동사의 체외 진단 매출은 21.8억 달러(6% YoY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대용량 진단 12.7억 달러(8% YoY, 2026년 상저하고 예상), 신속 진단 및 분자 진단 8.1억 달러(-7% YoY,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수요 둔화), 암진단 9,600만 달러 (분기 전체 인식 시 13% YoY) 를 기록했다.

기타 사업 부문

1) 영양 사업 부문

영양 사업 매출은 20.2억 달러(-6% YoY)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는 4Q25에 판매량 회복을 목표로 시행한 전략적 가격 조정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초기 데이터는 긍정적이며 올해 안에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2) 일반의약품 사업 부문

중남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14.3억달러 (13% YoY)를 기록했다. 동사는 이머징 지역을 중심으로 5개 치료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제품군과 시장 선도적인 여러 항암 치료제를 포함하는 확장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Q) Nutrition 회복은?

A) 4분기에 제품별·지역별로 꽤 정교한 가격 재조정을 했다. 경쟁사 대비 가격 격차와 탄력성을 분석해, 전 제품 일괄 인하가 아니라 수요 반응이 기대되는 SKU 위주로 가격을 조정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 반영이 일어난 곳에서는 의도한 대로 volume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Adult Nutrition의 Ensure는 가격 탄력성이 있는 제품이었고,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가 반영된 유통 채널에서는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주간·월간 데이터로 매우 면밀하게 추적 중이다. 아직 회복이 완료됐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초기 징후는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신제품 출시와 유통 확장도 병행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는, Abbott는 제품·지역·고객·지불자·혁신 사이클 측면에서 다각화된 구조를 강점으로 본다. 특정 1~2개 제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각 사업의 시장 매력도와 경쟁 지위를 계속 점검하며 expand, maintain, reduce 중 어떤 전략을 취할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Nutrition도 예외는 아니지만, 현재는 단기 회복이 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Q) Core Lab 사업은 지역별로 지금 어떤 흐름인가? 중국 VBP는 거의 끝났나?

A) 중국 Core Lab은 1분기 매출이 flat이었다. 작년에는 각 분기마다 15%~30% 하락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안정화다. 아직 VBP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최소한 가장 큰 충격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고 본다. 연간 중국은 single-digit decline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1분기 성과를 보면 더 나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high single-digit 성장률을 꾸준히 내고 있다. 계약 갱신율은 90%+, 신규 수주 win rate는 55%+ 수준으로, share gain이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지역차가 있지만 대체로 mid- to high single-digit 성장 흐름이 안정적이다.

전체 Core Lab 사업이 2026년 연간 mid-single-digit growth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포트폴리오의 약 80%가 이미 VBP를 거쳤으며, 향후 fertility, cancer 등 새로운 VBP가 나올 수 있지만 Abbott의 점유율은 그 영역에서 매우 낮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안정화되고, 나머지 지역은 역사적 패턴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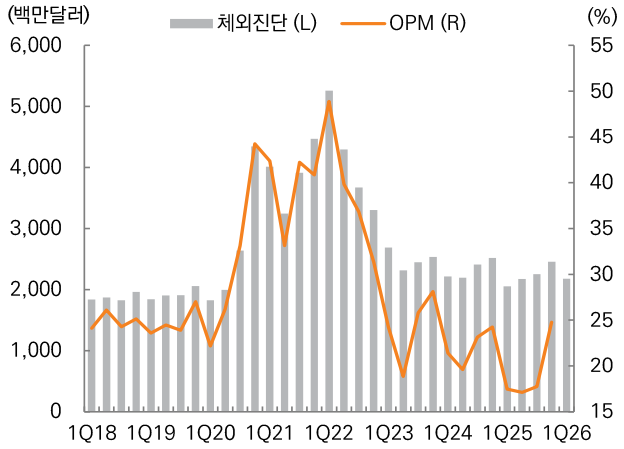
Q) Exact Sciences 인수 후 전략은?

A) Exact Sciences는 단순히 Cologuard 하나를 위한 인수가 아니라, screening, therapy selection, MRD testing까지 포함한 broader cancer diagnostics 시장 진입의 beachhead로 보고 있다. Cologuard 성장 지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우선 수요가 여전히 높다. 미국 내 CRC screening이 최신 상태가 아닌 인구가 5,000만 명이다. 여기에 2021년 screening 시작 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낮아졌고, 향후 40세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만 추가로 2,000만 명이 더 시장에 들어온다. 미국 내 연간 대장내시경 공급 능력은 약 600만 건 수준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반면 screening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평균 대기기간이 3~9개월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Cologuard는 집에서 할 수 있고, 민감도 95%로 대장 내시경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한다.

Exact가 구축한 상업적 인프라도 강점이다. 약 1,000명 규모 영업조직이 PCP를 커버하고 있고, 분기마다 20만 명의 의료진이 Cologuard를 처방하고 있다. 또 리스크리닝(rescreen) 비중이 이미 전체 테스트의 25%에 달하며, 3년마다 재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적 기반이 커질수록 성장 안정성이 높아진다. 현재는 연간 약 50만 명이 rescreening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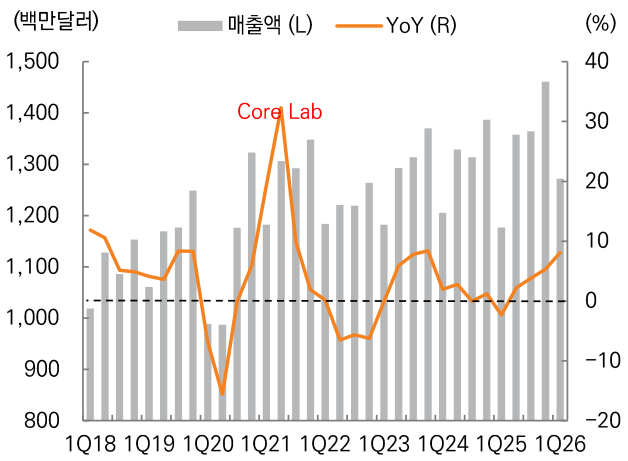
또 CMS star ratings에서 CRC screening이 중요한 품질 지표이며, Cologuard는 FIT 대비 3배 품질 점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payer와 provider 입장에서도 매력적이다. 해외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꼭 모든 시장에서 Cologuard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암 스크리닝에 대한 수요는 강하며 Abbott의 규제, 유통, KOL 관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21. 체외 진단 사업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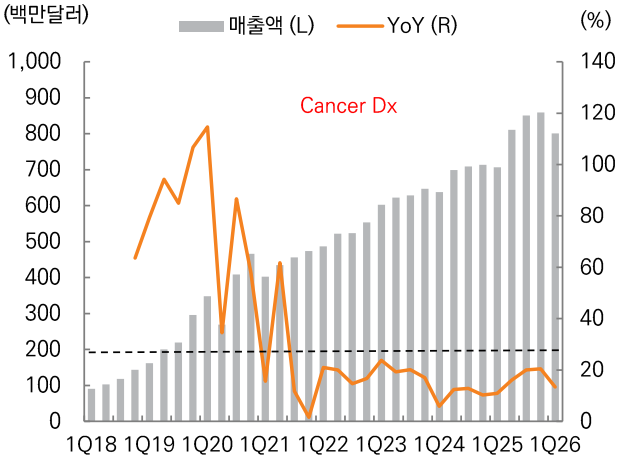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Core Lab 사업 부문 매출 추이(핵심제품: Ali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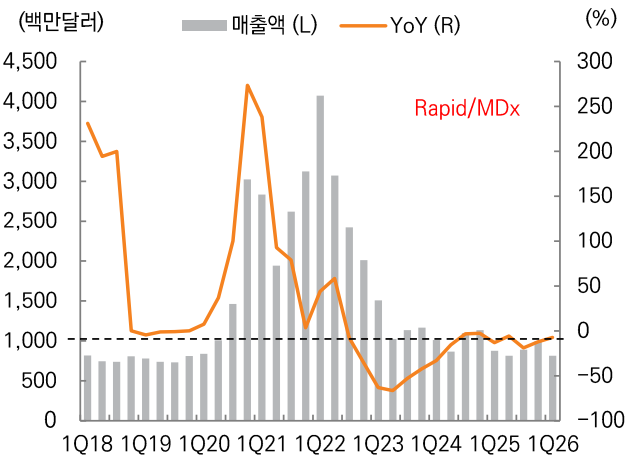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Cancer Dx 사업 부문 매출 추이(핵심제품: Colog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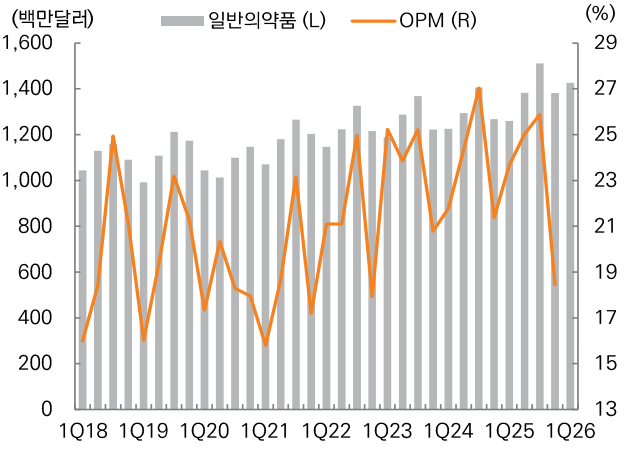
주: EXAS 기존 매출 추이 반영,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Rapid/MDx 사업 부문 매출 추이(핵심제품: Bin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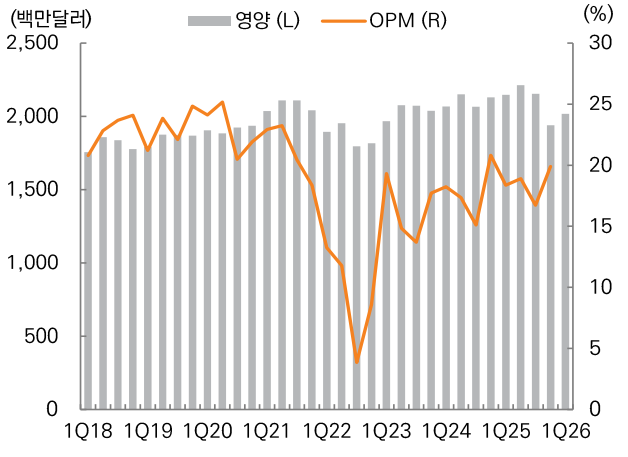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5. 일반의약품 사업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영양 사업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AB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